교육공무직원 채용 공정 · 투명성 확보

도교육청, 공정채용 규칙 제정… 피해자 구제 근거 등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9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용의 원칙·채용절차·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에 관한 사항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31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채용 관련 심의기구인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구직시스템 운영 및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2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2층 강당에서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신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 ·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총 112명… 초 · 중등 신규 교사 32명에도 임명장 수여

서거석 교육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위해 힘 쓸 것"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본청 2층 강당에서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 대상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장 등 기관장(부서장 포함) 5명을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장 39명, 교(원)감 36명, 교육전문직원 32명 등 총 112명이다.

서 교육감은 "임명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면서 "특히 신규교사로 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초·중등 신규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교사는 초등 31명, 중등 1명으로 총 32명이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대면 진학상담실 운영

도교육청, 내달 1~8일 본청 · 6개 교육지원청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을 위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면 진학상담은 도교육청과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상시 대면상담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9월 1~8일까지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서 운영하며, 평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교육지원청 상담 장소는 각각 전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2층,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1층 교육상담실, 정읍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1층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3층 학력지원센터 등이다.

이에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진로진학 홈페이지(http://www.jbe.go.kr/jnro)에서 '대입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학생부, 모의평가 성적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 자료를 지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ESG와 노동' 토론회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는 22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와 공동으로 'ESG와 노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노동 현안을 진단하고 ESG를 통한 노사관계 혁신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치용 ESG연구소장의 'ESG이해와 대응'과 김경자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객원교수의 '우리 공동의 미래, ESG-선택과 고민이 아닌 이용할 때!'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운우 우석대학교 ESG경영학과 주임교수와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영훈 ESG코리아 기획위원장, 이윤진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비람 운영이사,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등이 나섰다.

곽오열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장 겸 서울시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분야가 ESG의 두 번째인 사회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ESG와 노동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최초의 자리이며, 앞으로 노사정 각계가 꾸준히 논의의 장을 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기관 신청접수

31일까지… 선정시 3년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4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공고'를 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kmcl246@jb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9월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11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년이며, 교육감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운영기관 지정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장은성 기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전북대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 997명 등 총 1537명 학위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대학본부에서 삼성문화회관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의 졸업식사와 외빈 축사 등이 이어졌고, 우수 졸업생 등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또한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판소리 및 민요, 음악과 김지환 교수와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 등의 축하공연도 진행돼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김윤선 학생(원예학과)을 비롯한 89명이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고, 핵심연구상에는 전유미 학생(화학과) 등 11명이, 우수연구상에는 라비찬드란 발라지 박사(나노융합공학과) 등 3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한 졸업생이 동료들로부터 졸업을 축하받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양오봉 총장은 이날 162명의 박사와 378명의 석사, 997명의 학사 등 모두 1,537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양 총장은 "이즈음이면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묻겠다'라는 시구가 떠오른다"며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 시구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라며,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이날 학위수여식에 함께하지 못한 졸업생과 가족들을 위해 23일까지 건지광장과 삼성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익산캠퍼스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컬30 지정 위해 뉴질랜드 주요 대학과 협력

전북대, 오클랜드대 · 링컨대 캔터배리대 등과 협력 약속

현지 교민회와 한옥건축 통한 긴밀한 교류도 이어나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주요 대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 방문길에 오른 양오봉 총장은 세계 순위 100위 내의 오클랜드대학교를 찾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양 대학 간의 공고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해밀턴에 있는 와이카토대학교를 방문해 새롭게 신축하는 이 대학의 시설을 견학했다. 이 대학은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前총리를 배출한 대학으로 경영 분야가 세계 1%안에 드는 명문대학이다.

특히, 양 총장은 QS 세계 순위 40위권, 뉴질랜드 순위 1위의 명문대학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링컨대학교에서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러더퍼드를 배출한 캔터베리대학교를 찾아 학생 및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최근 신축한 러더퍼드 공학관을 견학했다.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주요 대학을 방문했다. 사진은 크라이스트 처치 소재 링컨대학교를 찾은 양오봉 총장이 강연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현지 교민회와 한옥건축을 통한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양 총장은 로토루아 교민회를 만나 뉴질랜드에 한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회와도 한옥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오봉 총장은 "뉴질랜드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전북대와 한국을 대표하는 한옥건축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회 메리 윤 회장은 "전북대가 한옥수출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며 "글로컬대학으로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대가 더욱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 실시하라"

전북교사노조, "교장은 상담과 책임 · 교감은 실무 맡아야"

교육활동보호조례 '학부모 소환제' 담은 조항 신설도 주장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재석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교사가 민원이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능력과 권위, 경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학교에 일원화 된 공적인 민원처리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교장선생님은 상담과 책임을, 교감선생님은 실무를 맡아달라"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에 '학부모 소환제'를 담은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전북교사노조 자체 설문에서 응답에 참여한 1,700여명의 선생님 중 98.4%가 찬성한 대책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학생에 큰 처벌을 내림으로써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 처치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교단에 서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넓어졌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 역시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학습을 강요받거나 요구받지 않을 권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을 방해받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이 해야할 일이지만, 학생의 성장에 필요하다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행하는 것 역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정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생활지도고시'가 법령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기에 조례의 일부분을 고시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